

John L. Esposito¹, *The Future of Isl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임스데반 *

서론

오늘날 세계화 격랑 속에서 변화의 소용돌이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는 어디에도 없다. 이슬람 세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중동의 민주화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 사회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변화는 이슬람 미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슬람 사회는 과연 세계화된 새로운 세계 속에서 하나의 정당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 자리매김이 성공적이 되려면 이슬람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두 과제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새로운 시대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슬람의 정체성 확보는 동시에 세계화된 새로운 시대 속에서 전세계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세계가 새로운 세계의 일원으로서 공존의 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이슬람 세계가 이슬람 세계의 변화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슬람이 주류사회 일원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슬람의 성장, 그리고 이슬람이 세계의 정당한 일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의혹의 눈초리,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 그들을 사회의 정당한 일

* 동남아시아 지역 GMP 선교사 (Missionary of GMP, Serving for South East Asia)

1. John Esposito는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조지타운 대학 교수로서 국제문제 및 이슬람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비무슬림 이슬람 전문가로서 그는 이슬람 이해에 있어서 서구 지식인과 무슬림 지식인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애쓰고 있다. *Islam and Democracy* (1996), *What Everyone Needs to Know about Islam* (2002), *Who Speaks for Islam: What a billion Muslims really think* (2008) 그리고 *Islam: The straight path* (2004) 등 대표적 저술들이 있다.

원으로 받아들일 것 거부하고 있다.² 저자는 이 부분 역시 이슬람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인식한다. 저자는 서구와 미국에 이미 상당수의 무슬림들이 국민의 일부로 정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정당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또한 세계화된 추세와도 상충된다.

저자는 서구의 이슬람 이해가 편향적이라 지적한다. 그리고 이 편향성은 이슬람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교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슬람 세계 밖 사람들의 이슬람 내부에 대한 바른 이해야말로 이슬람과 비이슬람 세계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슬람 세계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비이슬람 세계, 특히 미국과 유럽으로 지칭되는 서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서구가 무슬림 대중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개혁주의적 태도들을 지원함으로써, 이슬람 세계가 시민사회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바람직한 이슬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³

무슬림들의 자기 이해

이 책에서 Esposito의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슬람은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이다. 이슬람의 미래를 논의하려면, 먼저 이슬람 세계의 현주소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이슬람은 누구에 의해 대변되는가? 여러 가능한 답이 있을 수 있다: 서구 미디어, 과격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즘, 이슬람 세계를 주도하는 정치, 종교지도자 등. 그런데 Esposito는 의외의 답을 제시한다. 대다수 무슬림들의 자기이해 속에서 이슬람 세계의 현주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슬람 사회가 서구에 의해 오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이슬람 세계

2. 비이슬람 지역의 이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한국 사회에서 한동안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이슬람포비아” 문제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 다종교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유럽과 미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슬림 인구는 이들 지역에서 이미 두번째 또는 세번째로 많은 종교인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슬람 세력을 유럽과 미주의 정당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3. 저자는 *The Future of Islam* 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쓰여졌다고 쓰고 있다. 1) 진정한 이슬람 정신 (the soul of Islam)을 회복하기 위한, 이슬람 내부의 개혁주의적 몸부림들을 이해하기 위해, 2) 무슬림 세계의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을 파헤치기 위해, 3) 이슬람 개혁과 관련한 논쟁들과 그 역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리고 4)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주의에 대하여 진행되는 시도들을 평가하기 위해, 5) 무슬림 세계와 서구 관계의 미래를 가능하기 위해 쓰여졌다. Esposito (2010), 3.

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서구 학자들 역시 이슬람 세계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소개하지 못해 왔다. 서구인들의 이슬람 이미지는 상당부분 서구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서구 미디어는 이슬람 세계를 어떻게 묘사해 왔는가? 서구 미디어에 비춰지는 이슬람 세계는 근본주의 이슬람/ 테러리즘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⁴ 한편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근대화와 이슬람을 통합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또는 중세적 이슬람 문화를 강조하는 종교지도자들의 신학이 이슬람 세계를 대변해 온 면도 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책에서 이슬람 세계를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인 대다수 일반 대중 무슬림이며, 일반대중 무슬림들의 생각하는 이슬람 세계의 자화상이야말로 이슬람 세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슬람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다수 대중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낼 창구나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슬람 세계에 대한 이미지는, 소수의 신학자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대변되어 왔다. 때문에 저자는, 이슬람 세계의 자기이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대다수 대중이 갖고 있는 의식 조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는 갤럽과 함께 “Who Speaks for Islam?”이란 주제로 실시된 광범위한 리서치를 통해 실제 다수 무슬림들의 이슬람 세계 정체성을 조사하였다.⁵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저자는 이슬람 세계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그는 무슬림 대중들 안에 진행되고 있는 개혁주의적 의식들에 대해 소개하고 이는 이슬람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하

4. 물론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저자는 서구 미디어에 비춰지는 근본주의적 이슬람을 통해 이슬람 세계는 서구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어 온 면이 있는데, 이는 실제 이슬람 세계와 거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의 책 *The Islamic Threat: Myth or Reality?* (1992)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위협을 이슬람 세계의 모습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거부한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이슬람의 일부일 뿐이며 이들을 통해 이슬람이 서구 사회가 위협 받고 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이는 갤럽에 의해 6년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리서치였다. 이 리서치는 35개 이슬람 국가들에 살고 있는, 농촌과 도시, 여자와 남자, 젊은이와 노인, 그리고 문맹자와 지식인을 총 망라한 수만 명의 무슬림들에 대한 일대일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들이 사용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왜 무슬림들은 반미적인가?” “누가 극단주의자인가?” “무슬림들은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무슬림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등. 이 설문 결과는, 테러리즘, 극단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이슬람 세계 이미지는 여러 면에서 왜곡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Dalia Mogahed와 함께 공저한 *Who Speaks for Islam? What a Billion Muslims Really Think* (2008) 통해 자세히 보고되었다.) 한편, 이 책을 저술한 John Esposito와 Dalia Mogahed은, “Who Speaks for Islam?”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각기 다른 인터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jrDvC5u20KI> (John Esposito’s interview: lastly visited Feb. 16, 2012). <http://www.youtube.com/watch?v=Bn12s19X8xU> (Dalia’s interview, lastly visited Feb. 16, 2012).

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⁶

두번째 저자가 던지는 화두는, 이슬람 근본주의와는 다른 방향성을 가진 다수 대중 무슬림의 영향력이 어떻게 바람직한 이슬람 미래 형성을 위한 변수로 작용하도록 할 것인가? 이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슬람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집단이 영향력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세계화되고 다원주의 세계관이 지배할 미래 세계에서 대다수 대중 무슬림을 대변할 세력으로 중도적인 사고를 가진 지도자들, 즉 개혁주의적 사상을 가진 학자, 활동가들을 주목한다.⁷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의 정책들, 경직된 이슬람 근본주의 신학들, 중세적 사고에 젖어있는 극보수주의 종교지도자들, 사회발전이 정체된 여러 이슬람 사회들의 후진성 등으로 인해, “이슬람은 근대 시민사회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는 19세기 이래 자체 개혁의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다. 오늘날에도, 저명한 이슬람 신학자들, 학자들, 사회운동가들, 대중 설교자 등 다수의 지도자들이 현대 기술 및 미디어를 이용하여 21세기 세계 적응을 위한 이슬람 세계 개혁 이슈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 일반 대중 무슬림들(the grass roots) 사이에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열망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갤럽조사 결과는,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 대중이 개혁을 원하고 있으며, 그 개혁을 위한 틀이 이슬람 신앙 안에서 세워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⁸

그렇다면 이 개혁적 무슬림 지식인들의 영향력이 과연 미래 이슬람 세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정도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가?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저자의 입장이 맞는지는 가늠하

6. 저자는, 무슬림 대중 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무슬림, 특히 서구에 정착한 무슬림들은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서구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갤럽 조사에 응한 무슬림의 91%는 9.11 테러를 비롯한 테러리즘에 동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Esposito (2010, 30)) 유럽 거주 이주 무슬림 대다수가 극단적인 근본주의 이슬람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Ibid., 28.)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무슬림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취업 등 경제적 안정, 공정한 법집행과 민주정치, 사회 긴장 완화, 문명퇴치, 사회정의, 그리고 종교의 자유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무슬림들의 삶에 대한 우선순위는 서구의 비무슬림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Ibid., 55.)

7. 저자는 개혁적인 무슬림 지식인으로 여러 무슬림 지도자를 예로 들고 있다. Esposito는 그의 책 제3장 “Where are the Muslim Reformers?”에서 다수의 무슬림 학자, 지도자들의 개혁주의적 시도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소개하는 개혁주의적인 무슬림 지도자들로는 TIME 지를 통해 세계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 100인으로 뽑힌 Tariq Ramadan, Amr Khaled을 비롯해 Sheikh Ali Gomaa, Mustafa Ceric, Yusuf Qaradawi, Nurcholish Madjid, Timothy Winter, Farhat Hashmi, Amina Wadud, 그리고 Heba Raouf 등이 있다.

8. Esposito (2010), 139.

기 어렵다. 최근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 운동과 이슬람 개혁주의 바람 등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슬람 세계는 이슬람 신앙, 더 구체적으로는 꾸란 해석 방법론에 의해 규정되는 면이 많다. 그러므로 이슬람세계 내의 개혁적 관점들은 이슬람 신학 또는 꾸란의 가르침에 대한 재해석 문제로 연결된다. 과연 세계화,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하도록 꾸란 또는 이슬람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한가? 저자는 이에 대한 최근 시도들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서구의 고민: 이슬람을 서구의 정당한 일원으로 수용할 것인가?

저자는 이슬람의 미래는 이슬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유럽과 미국 등 서구의 역할 역시 이슬람의 미래 방향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 때문에 서구의 바른 이슬람 세계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바로 서구 사회에 깊숙히 퍼져있는 이슬람에 대한 반감, 의심이다. 이슬람 포비아 현상에서 보듯이, 서구사회는 이슬람을 정당한 일원으로 받아들였을 경우, 이것이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무슬림들의 주류사회 진출은 (서구적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한에서) 선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저자는, 서구 세계에 퍼져있는 “이슬람 포비아”(Islamophobia), 즉 이슬람을 위험요소로 보고 거부하는 태도가 극복되지 않고는 바람직한 이슬람 미래를 위한 협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저자는 이슬람 포비아 현상은 결국 헌팅톤이 주장한 “문명의 대결”로 세계를 몰아가며 이슬람 세계와 서구 사회의 공존을 저해한다고 본다. 이슬람 포비아를 앞세워 이슬람 세계를 거부하는 서구 또는 기독교의 태도는 이슬람의 절대성을 앞세워 비무슬림 세계를 부정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해한다. 최근 유럽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유라비아”(Eurabia) 개념을 둘러싼 이슈 역시 이슬람 세계에 대한 서구의 의심과 거부를 보여준다. 유라비아는 유럽과 아라비아의 합성어로, 유럽이 이슬람에 의해 점령될 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말이다. 이 토론은 최근 이집트 태생 유대계 학자인 Bat Ye'or 가 쓴 동명의 책 Eurabia: Euro-Arab Axis 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이런 쟁점들은, 세계화된 시대 속에서 이슬람 세계가 그 정당한 일원으로서 서구와 미국 등 서구 사회에 의해 용납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슬람 세계를 유럽의 정당한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다. 현재 유럽 전역에 약 4천 4백만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 인구 6%에 해당한다.⁹ 만약 터키가 유럽연합 (EU)에 가입하게 되면 무슬림이 일시에 1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유럽 내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서구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다문화, 다원주의를 지향해 온 서구 사회/ 문화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

이슬람 사회는 다원화되고 세계화된 오늘날, 지구촌의 존경받는, 정당한 일원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이는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던지는 또 다른 화두이다. 저자는 서구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무슬림들 공동체,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유럽과 미주에 이주해 와 정착하고 있는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세계가 서구 다문화, 세속화 사회 속에서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슬람 세계의 미래와 관련한 서구 사회의 입장과 관련하여, 저자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제시한다. 이슬람 세계의 개혁, 개혁주의 세력의 성공은, 유럽, 미국과 같은 서구 세력의 이들에 대한 지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¹⁰ 즉, 서구 지식인

9. The FEW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이 2011년 1월 발표한 ““The Futu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Projections for 2010-2030””이란 논문에 따르면, 1990년 2,960만명이었던 유럽 내 무슬림 인구는, 2010년 현재, 4,410만명으로 늘어났다. 2030년이 되면 이 수는 5,800만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유럽 인구의 6%에서 8%로 무슬림 인구 비율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http://www.pewforum.org/future-of-the-global-muslim-population-regional-europe.aspx> (2012. 05. 06)

10. 이 관점은 2009년 6월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서 행한 오바마의 역사적 연설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미국은 이슬람 세계와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무슬림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상호 이해와 존경에 기초해서 함께 새로운 진보의 길을 찾을 것”이라 한 그의 취임연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Esposito (2010), 142.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많은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 세계의 개혁은 이슬람 내부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믿고 있다. 외부, 특히 서방세계의 지원에 의한 변혁은 언제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심각한 반작용을 불러오기도 한다. Sam Harris는 그의 책, *The End of Faith: Religion, Terror, and the Future of Reason* (2004)에서 이슬람 개혁은 내부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Is Islam compatible with a civil society? Is it possible to believe what you must believe to be a good Muslim, to have military and economic power, and to not pose an unconscionable threat to the civil societies of others? I believe tha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no. If a stable peace is ever to be achieved between Islam and the West, Islam must undergo a radical transformation. This transformation, to be palatable to Muslims, must also appear to come from Muslims themselves. It does not seem much of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fate of civilization lies largely in the hands of “moderate” Muslims. Unless Muslims can reshape their religion into an ideology that is basically benign – or outgrow it altogether – it is difficult to see how Islam and the West can avoid falling into a continual state of war, and on innumerable fronts” Harris (2004), 152.

들, 정책결정자들은 이슬람 개혁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이슬람 사회가 시민사회(civil society)로 발전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슬람 사회가 세계화된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하나의 정당한 일원으로 인정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바람직한 이슬람 미래를 위한 제언

저자는 중도적이며 개혁적 경향을 갖고 있는 무슬림 대중과 이슬람 개혁을 주장하는 개혁주의 지식인 세력이 이슬람 미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혁주의적 성향의 무슬림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이 이슬람 개혁을 주도하기에는 아직도 극복되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혁주의적 무슬림들은, 여전히 강력한 저항세력의 도전을 직면하고 있는 소수자들이다. 억압적인 권위주의 정부(repressive authoritarian regimes)들은 법에 의한 통치, 권력의 공유를 외치는 개혁주의 세력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종교적 극단주의자들(religious extremists)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슬람”에 반대하는 개혁주의를 봉고시켜야 할 적으로 믿고 있다. 중세적 패러다임에 충실한, 고집스런 보수 종교세력들(intransigent religious conservatives)은, 권위주의적 정부와 결탁하여 개혁주의 이슬람을 “이단”으로 정죄한다.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사고와 행동을 보장하는 시민사회로 성장하지 못한 많은 이슬람 지역에서 개혁주의적 무슬림들은 자신들을 지지할 세력들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¹¹

과연 이슬람 개혁주의 세력이 미래 이슬람 사회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이슬람의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이 책의 결론에서, 이들 개혁주의 세력은 이슬람사회 미래를 주도할 만큼 확고하지 못하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서방 세계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¹²

저자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이슬람 신앙과 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슬람 정치 경제 사회적 실패가 이 극단주의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사회의

11. Esposito (2010), 195.

12. Esposito는 과거 서방의 이슬람 세계에 대한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과거 서방은 이슬람 국가들의 권위주의적 정부 지원을 통해 과격 무슬림 세력 통제를 지원했으나 이 접근은 성공하지 못했다. 저자는, 앞으로는 개혁주의 무슬림 세력을 지원해서, 그들과 함께 이슬람 정치, 경제, 사회가 시민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장은, 중도적이고 개혁적 성향을 갖는 무슬림 대중들의 참여를 높이고 이는 테러리즘을 주도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¹³

결론

이 책을 통해 제기한 Esposito의 논의들은 이슬람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오랜 동안 중세적 정치문화와 종교 영향력 아래 지내온 이슬람 세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대중 무슬림들의 태도와 견해가 이슬람 미래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제는 역사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주의 세력을 지나치게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한 면이 있다. 이슬람 내부의 개혁주의적 성향은, 세계화 세속화의 분위기 속에서 이슬람 사회 전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총체적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이슬람 개혁주의 지원이 이슬람 사회의 시민사회화와 민주화에 주요 변수로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서구 미국의 간섭이 이슬람 근본주의 강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 듯 보인다.

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Esposito는 이 책을 통해, 이슬람의 미래, 그리고 이슬람과 함께 어울어져 가야 할 세계화된 미래를 향해 시의적절한 토론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슬람의 미래는, 이슬람 근본주의, 또는 극단주의 이슬람이 아니라, 중도적이고 개혁적 성향을 가진 대중 무슬림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둘째, 이 대중들의 갈망과 태도를 대변할 세력으로서, 개혁주의적 학자들, 무슬림 활동가들의 역할에 주목한다. 셋째, 개혁적 이슬람 시민사회의 형성을 통해 이슬람 사회가 미래(서구/비무슬림) 사회 속에서 하나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이슬람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서구 사회의 이슬람 이해가 확대되어야 하며 개혁주의 성향 무슬림 세력을 중심으로 이슬람 세계의 시민사회화를 지원해야 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쟁점들은 이슬람 미래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이슬람 미래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저자는 이슬람 근본주의자

13. 서방 세계는 어떻게 이슬람 세계가 개혁주의적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가? 저자는 두 방향에서 그 가능성을 제안한다.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의 이슬람 세계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화된 환경 속에서 열린 대화를 통해 이슬람 사회 지도자들 뿐 아니라 무슬림 대중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sposito (2010), 196.

뿐만 아니라, 관용을 거부하고 “이슬람포비아”를 주장하는 서구의 태도 역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보았다. Esposito는 양 극단적 태도를 벗고 중도적이고 포용적인 관점, 정책이야말로 세계화된 다원사회에 필요한 태도라고 주장한다.

Esposito가 제시하는 낙관적인 이슬람 미래상은, Joseph E. B. Lombard가 자신이 편집한 책 *Islam, Fundamentalism, and the Betrayal of Tradition, Revised and Expanded* (2009)의 서문에서 피력한 이슬람 세계 미래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세계화된 시대 속에서 이슬람 문화와 함께 서구의 세속화된 문화를 접하면서 성장한 무슬림 신세대 (지식인)들로 인해 이슬람의 미래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래 세계에서 단절된 두 세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The late twentieth and early twenty-first centuries have given rise to a new phase in the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Islam and the West. ... They have also produced a large crop of young Muslims who are of both the East and the West, Muslims who are as familiar with the streets of London, Paris, and New York as they are with the streets of Cairo, Tehran, and Islamabad. ... At a time when the forces of technology and globalization are pushing us ever closer, we must make use of all available means to alleviate the tensions that arise from our mutual misunderstanding. The generation is uniquely qualified to help all of us bridge the gap between Islam and the West, for they have spent much of their lives bridging it within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¹⁴

마지막으로 Esposito가 이 책에서 제기한 쟁점들은, 이슬람의 확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향해서도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과연 이 책의 관점은 한국 사회에도 적용가능한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한국사회가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을 하나의 정당한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무슬림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국사회의 충실한 시민으로서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사회의 핵심쟁점들 (예를 들면, 민주주의, 세속주의, 인권, 전쟁과 평화, 여성해방론, 다원주의 등)에 대해 합리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 주류 사회의 기존 가치들에 대한 충성심, 헌신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14. Lombard (2009), xii

● **신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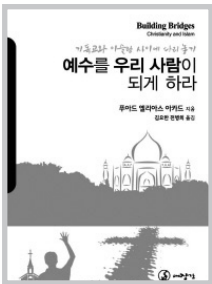


이슬람과 한국문화 걸프 해에서 경주까지 1200년 교류사

저자 이희수 | 출판사 청아출판사

● **책소개** 『이슬람과 한국문화』는 동서양 자료를 총 집합하여 파헤친 한국과 이슬람의 1200년 교류사를 담은 책이다. 한국 문화와 고대 서아시아, 7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문화권과의 접촉과 교류를 살펴보았다. 본문은 크게 7~12세기 해상 접촉기, 13~16세기 실크로드 접촉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근대 접촉기,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이슬람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아랍이나 페르시아 등 이슬람권 원전 사료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저자소개** 저자 이희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립이슬람대학교 최초의 한국 유학생으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0년 동안 터키,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 문화를 연구했다. 또한 터키 이스탄불 마르마라대 조교수, OIC 이슬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 튀니지사회경제연구원(CERES)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중동학회 회장, 한국-터키친선협회 사무총장 등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이슬람'과 '어린이 이슬람', '세계 문화 기행', '지중해 문화 기행', '이스탄불' 등 다수가 있다.



예수를 우리 사람이 되게 하라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다리 놓기

저자 푸아드 엘리아스 아카드 | 역자 김요한 | 출판사 대장간

● **책소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 먼저 이슬람의 신성한 경전인 꾸란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라운 것은 '꾸란'이 '토라'(모세오경)와 '인질'(Injeel), 그들이 '예수의 복음서'라고 이해하는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그것을 무슬림들에게 읽도록 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꾸란에서 예수를 높이 존경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무슬림을 만날 때 꾸란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 **저자소개** 저자 푸아드 엘리아스 아카드는 레바논 태생으로 그리스 정교회에서 성장하였고 무슬림을 향한 사역에 그의 삶을 바쳤다. 아카드는 안수 받은 목사로서 고대 히브리어, 그리스어, 옛 시리아어, 아람어, 아르메니아어를 알았던 학자였으며, 말년에는 존경받는 하킴(hakeem, 현자)으로 불리면서 진기한 문들이 그에

게 열렸다. 그는 중동에서 평범한 농민으로부터 셰이크들(sheiks; 이슬람의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저명한 인사들과 친구로 사귀었다. 아카드 목사는 1994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카드는 기독교신자와 이슬람신자 서로간의 이해와 의사소통, 그리고 사랑의 다리를 짓는데 그의 생애를 바쳤다.

• **역자소개** 역자 김요한(Ph. D.)은 1994년부터 동남아시아 무슬림 권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현재 인사이더스 선교회 대표로, 아시아전방개척선교협의회(AFMI) 및 아시아전방개척선교학회(ASFM)의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다. 대표 저서에는 『무슬림 가운데 오신 예수』(2007년, 도서출판 인사이더스), 『내부자관점과 비즈니스 선교전략을 위한 교회리더용 훈련교재』(2009, 도서출판 인사이더스) 등이 있다.



한스 킹의 이슬람 역사 현재 미래 -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의 실천적 지침서

저자 한스 킹 | 역자 손성현 | 출판사 시와진실

• **책소개** 한스 킹의 획기적인 저작 《유대교》, 《그리스도교》에 이어 《이슬람》이 출간됨으로써 아브라함의 세 종교를 다룬 삼부작이 완성됐다. 독자들에게 새롭게 선보이는 이 방대한 저술은 이슬람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심오한 연구서다. 그는 이슬람 1,400년 역사의 흐름을 따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묘사하고 다양한 흐름을 서술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이슬람 세계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을 소개해준다

• **저자소개** 저자 한스 킹은 1928년 스위스 수르제에서 태어났다. 로마 교황청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뒤 1954년 가톨릭 사제로 서품을 받았다.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와 가톨릭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1957년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59년까지 스위스 루체른에서 사목 활동을 하다가 1960년 독일 튀빙겐 대학교의 가톨릭 신학 교수가 되었다.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신학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1979년 가톨릭교회의 전통 교리에 대한 비판이 파문을 일으켜 바티칸으로부터 신학 교수직을 박탈당했으며 이 일은 국제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20년 동안 튀빙겐 대학의 '에큐메니칼 신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의장을 역임했고, 튀빙겐에 있는 세계윤리재단(Stiftung Weltethos)을 이끌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의 저술과 강연은 가톨릭 신학의 영역을 뛰어넘어 세계 신학계 전반에 큰 도전이었다. 우리말로 번역된 그의 저서로는 《그리스도교》 《왜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문학과 종교》 《중국 종교와 그리스도교》 《세속 안에서의 자유》 《세계 윤리 구상》 《민나이다》 《한스 킹, 과학을 말하다》 《그리스도교 여성사》 등이 있다

• **역자소개** 역자 손성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튀빙겐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옮긴 책으로는 게르트 타이센의 《역사적 예수》 《성서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프란츠 알트의 《생태주의자 예수》, 게르하르트 르틴의 《몸으로 읽는 성서 - 비블리오드라마》, 볼프강 · 에케하르트 슈테게만의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 리처드 홀슬리의 《크리스마스의 해방》 등이 있다.

Muslim-Christian Encounter 원고작성요령

1. 일반적 요령

- 1)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1., 2., 3), (4)의 순서에 따라 매긴다.
- 2)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표나 그림의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라고 쓴다.

2. 인용

1) 인용의 일반원칙

- (1) 각주 사용: 미주(endnote)나 약식 괄호주(Harvard Style)를 사용하지 않고 각주(footnote)를 사용한다. 인용을 처음 할 때에는 출판사항 등을 모두 명기한다.
- (2) 언어 사용: 모든 출처는 원자료에 나와 있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쪽수 표기: 인용 쪽수를 표기할 경우, 단수면의 경우는 p. 로, 복수면의 경우는 pp. 로 쓴다.
- (4) 서적과 논문: 서양어 서적의 경우 이탤릭체를 사용하며 동양어 서적의 경우 겹딴쇠(『 』)를 사용한다. 논문의 경우 동서양 모두 겹따옴표(“ ”)를 사용한다.
- (5) 기타: 각주는 2차 내어쓰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시카고 스타일(Chicago Style)¹⁾에 따른다. 한글 인용의 경우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영문 인용을 준용한다.

2) 예시

(1) 저서의 경우

전재옥, 『기독교와 이슬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pp.125-127.

Neal Robinson, *Christ in Islam and Christianity* (London: Macmillan, 1991), p.32.

(2) 번역서의 경우

라민 싸네, 『선교신학의 이해』, 전재옥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p.343.

(3) 학위논문의 경우

김영남, “이슬람 사회제도의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 : 파키스탄 이슬람 화에 나타난 성차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원, 2003, p.15.

Jeong-Min Seo, “The Religious Establishment between the Stat and Radical Islamist Movements : The Case of Mubarak’s Egyp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xford, 2001, p.45.

1. *The Chicago Manual of Sty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4) 학회지, 학술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의 경우

최영길, “꾸란에 등장한 인물연구 : 예수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 회논총』, 제16권 제2호 (2006), pp. 10-12.

안 신, “이슬람 다외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교연구 :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를 중심으로”, 『종교 연구』, 제50집(2008 봄), pp.234-239.

Ah Young Kim, “Quranic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Faiths,”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 No. 1 (Feb. 2008), pp. 58-60.

(5) 편집된 책 속의 글

김정위, “이슬람 원리주의와 지하드 운동”, 이슬람연구소 엮음, 『이슬람의 이상과 현실』 (서울: 예영, 199), p.49.

Lamin Sanneh, “Islam, Christianity, and Public Policy,” in Lesslie Newbigin, Lamin Sanneh, & Jenny Taylor, eds., *Faith and Power – Christianity and Islam in ‘Secular’ Britain* (London: SPCK, 1998), pp.29-38.

(6) 바로 앞의 인용과 동일한 경우

위의 책, p.1.

위의 글, p.23.

Ibid., pp.3-4.

(7) 같은 글을 여러 번 인용한 경우

① 동일한 저자의 저술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

전재옥, 앞의 책, p.33.

최영길, 앞의 글, p.11.

Robinson, op. cit., pp.3-4.

② 동일한 저자의 저술이 여럿일 경우, 두 번째 이상의 인용은 논문이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전재옥, 『기독교와 이슬람』, pp.25-30.

최영길, “꾸란에 등장한 인물연구”, pp.10-12.

Sanneh, “Islam, Christianity, and Public Policy,” p.30.

Robinson, *Christ in Islam and Christianity*, p.11.

3.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논문 끝에 실으며 다음과 같은 체재로 표시한다.

(1) 책일 경우

전재옥, 『기독교와 이슬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Robinson, Neal. *Christ in Islam and Christianity*. London: Macmillan, 1991.

(2) 논문일 경우

안 신, “이슬람 다와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교연구 :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를 중심으로”, 『종교 연구』, 제50집(2008 봄), pp.219-245.

Kim, Ah Young, “Quranic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Faiths,”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 No. 1 (Feb. 2008), pp. 53-72.

***Muslim-Christian Encounter* 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가 발행하는 정기 학술지 *Muslim-Christian Encounter* (이하 학술지)와 관련하여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자의 윤리)

1. 투고자는 연구자로서 정직성을 지켜야 하며, 학술적 저작물 집필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투고자는 일체의 표절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표절이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일컬으며,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 1)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본인이 수행한 기존 연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옮기는 행위.
 - 2)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유한 생각, 논리, 용어, 자료, 분석방법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 3) 출처를 밝혔더라도 분명한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사람의 논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또는 요약된 형태로 활용하는 행위.
 - 4) 기타 표절성이 현저하다고 간주될만한 모든 행위.
4.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의 표절 판정을 수긍할 수 없을 경우 반박할만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반박할만한 사유가 없거나 재심에서 다시 표절 판정이 내려지면 연구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은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글에 관련하여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 개인적 이념이나 친분 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원고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글에 대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관계에 의해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표절 행위가 확인된 투고자에 대한 제재를 지체하거나 임의로 제재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 표절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다.
 - 1)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2) 연구소 홈페이지 및 다음 호에 표절 사실 공지.
 - 3)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4) 표절 행위자의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5.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에 관하여 일체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표절 심의에 관하여 공표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윤리)

1.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를 수행함에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며, 개인적 이념이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 대상 원고를 평가하는 데 책임자가 아니라고 생각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연구자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의 제반 사항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Muslim-Christian Encounter 투고안내문

한국이슬람연구소는 1992년 창립이후, [무슬림은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이슬람의 이상과 실제], [아시아 무슬림 공동체], [무슬림여성], 등을 연구지로 발간하였고 2007년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Muslim-Christian Encounter 라는 이름으로 연구저널을 재 창간하여 년 2차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호의 주제는 "Peace, Justice and Muslim-Christian Relations"이며, 2호의 주제는 "Muslim Identities in Contemporary World", 3호의 주제는 "Islamic Da'wah and Christian Mission", 4호의 주제는 "Folk Islam", 5호의 주제는 "현대 이슬람의 다양한 이슈들", 6호의 주제는 "Women In Muslim"이었습니다.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한국이슬람 연구소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에 관한 사랑과 노력으로 한국이슬람연구소의 저널 *Muslim-Christian Encounter* 는 한국 유일의 기독교 이슬람에 관계에 관한 건전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지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Dudley Woodberry, Peter Riddell, Colin Chapman,과 같은 해외 유명한 이슬람 학자들과 국내의 이슬람 전문가들의 깊이있고 학문적 완성도가 높은 논문이 다수 게재되고 있습니다.

한국이슬람연구소에서는 *Muslim-Christian Encounter*에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의 원고를 모 집합니다. 분야는 이슬람 신학, 정치, 역사, 경제 및 기독교 이슬람관계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 기독교 선교를 위한 무슬림 전도방법론 등으로 이슬람에 관한 전반적인 이슈들과 기독교 이슬람관계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말합니다.

한국이슬람연구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논문을 게재하며, 투고된 논문 중 게재 가로 결정 된 논문에 한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합니다. 논문의 투고 시기는 상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햇불트리니티 한국이슬람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570-7563

E-Mail: ttcis@ttgu.ac.kr

햇불트리니티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 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55번지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55 Yangjae-Dong Sucho-Gu, Seoul 137-889, Korea

Contact 02-570-7563 E-mail ttcis@ttgu.ac.kr, Homepage <http://ttcis.ttgst.ac.kr>